



1

가슴이 뛰어요

◆ 이야기 속 인물의 기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꿀벌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봅시다.



꿀벌 마야의 모험

“당신의 날개는 참 아름답군요. 제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마야라고 해요. 꿀벌이지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나비는 약간 허리를 굽히고는 간단히 이렇게만 인사했습니다.

“프리즈.”

프리즈의 날개는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았습다.

“한번 날아 보시겠어요?”

마야가 대뜸 물었습니다.

“날아가 버리라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의 커다랗고 하얀 날개가 파란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당신은 어디 사세요?”

마야가 나비에게 물었습니다.

“일정한 거처는 없어요. 집이 있으면 돌봐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전에 애벌레였을 때는 온종일 양배추 앞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거기서 먹고 다른 애벌레랑 싸우기만 했지요. 전에 나는 털복숭이 애벌레였어요.”

“그렇 리가요!”

마야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곤충은 없어요. 심지어 인간조차 알고 있는걸요.”

어린 마야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제 기분이 어떤지 짐작하시겠죠?”

나비는 흔들리는 잔가지로 날아와 마야 옆에 앉았습니다.

나비는 애벌레였던 자신이 어느 날 실로 몸을 감기 시작해서 고치라 불리는 초라한 갈색 껍질에 싸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채로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껍질을 깨뜨렸답니다. 따스한 황금빛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지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뛰었어요.”

“그 기분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두침침한 우리 도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꽃향기 그윽한 햇빛 속으로 날아갔을 때 내 기분이 꼭 그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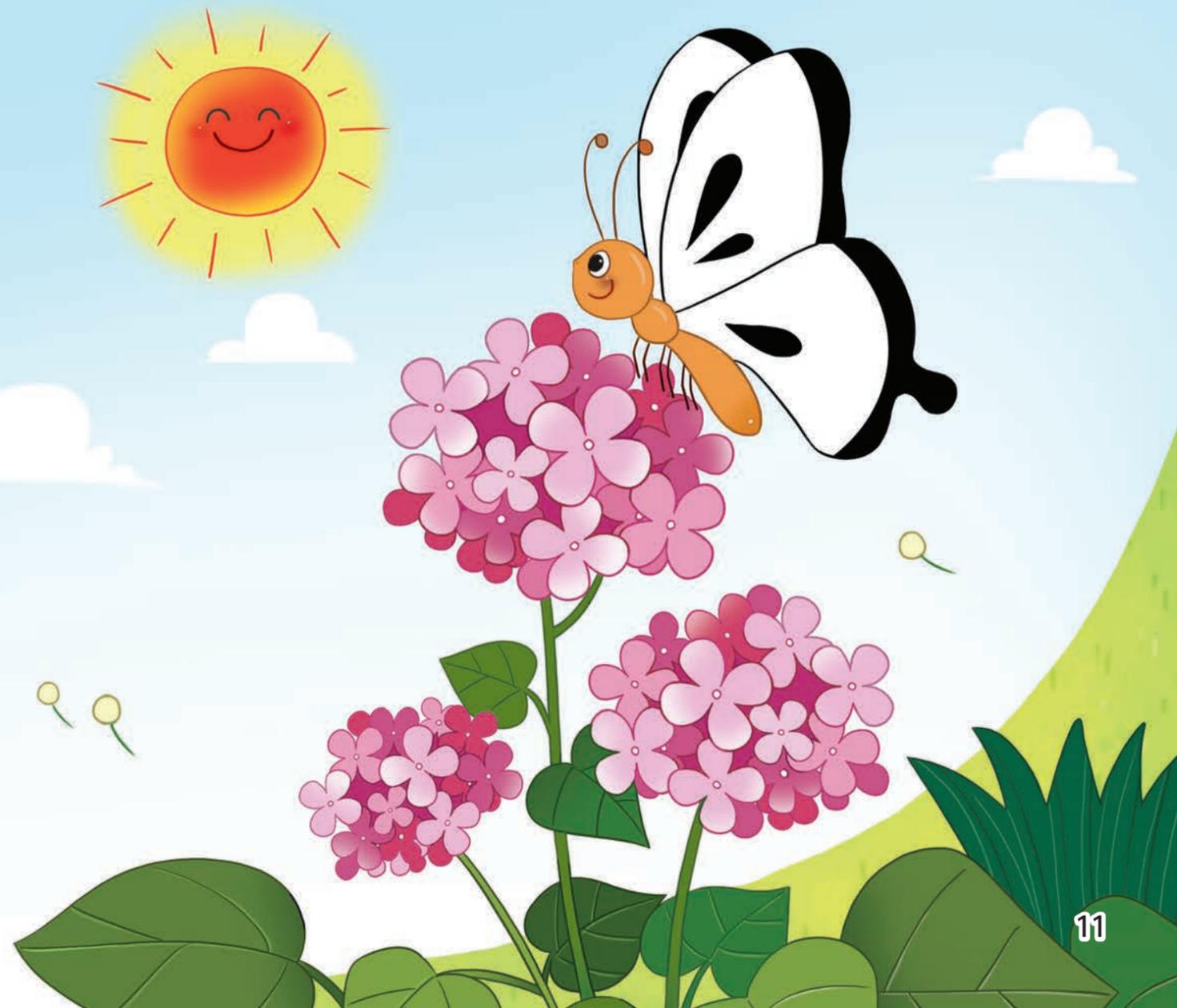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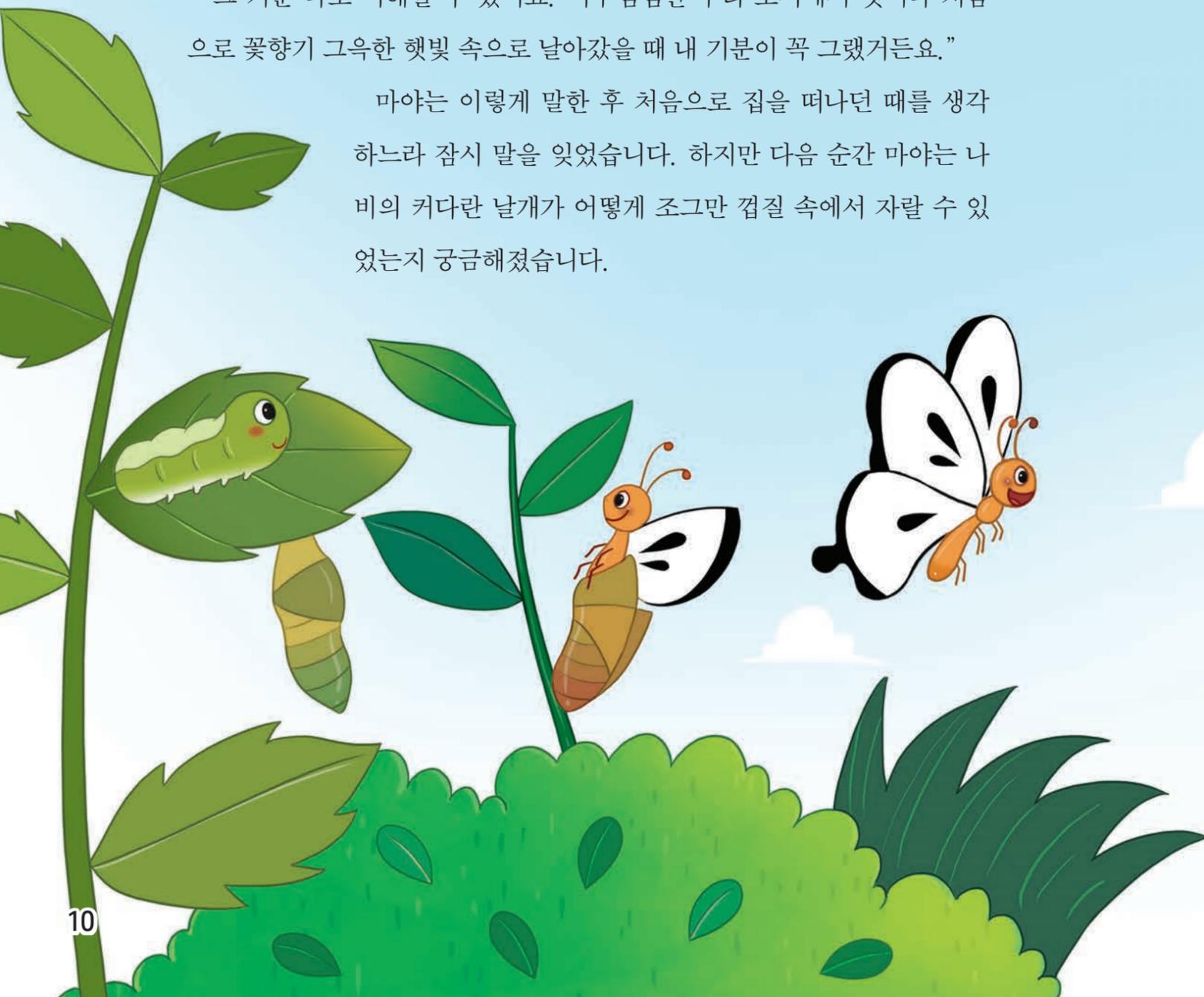
마야는 이렇게 말한 후 처음으로 집을 떠나던 때를 생각하느라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마야는 나비의 커다란 날개가 어떻게 조그만 껍질 속에서 자랄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프리츠는 마야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날개는 꽃잎이 꽃봉오리 속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살며시 포개져 있습니다. 날이 밝고 따스해지면 꽃잎은 저절로 퍼지잖아요. 내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햇볕을 쬐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마야는 맛장구치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나비가 황금빛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1 「꿀벌 마야의 모험」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마야가 프리츠에게 날아 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2 마야가 프리츠에게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3 나비의 커다란 날개가 조그만 껍질 속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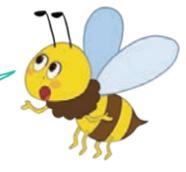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answer]

2 프리츠와 마야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써 봅시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껍질을 깨고 갑자기 해님을 보았을 때의 기분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어두침침한 우리 도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꽃향기 그윽한 햇빛 속으로 날아갔을 때 내 기분이 꼭 그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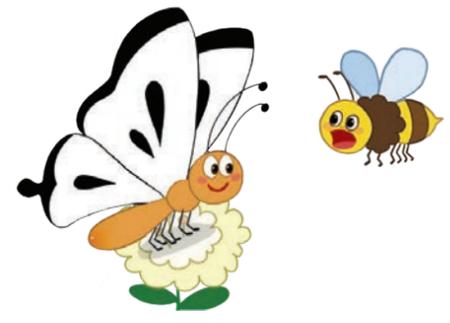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3 밑줄 친 낱말의 뜻과 비슷한 말을 찾아 O표를 해 봅시다.

저는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지요.

- 집
- 직장
- 시간표

4 마야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고 기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써 봅시다.



곰딸기의 가느다란 새순에 나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비는 커다란 날개를 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팔락이면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마야는 여태껏 수많은 나비를 보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나비를 본 순간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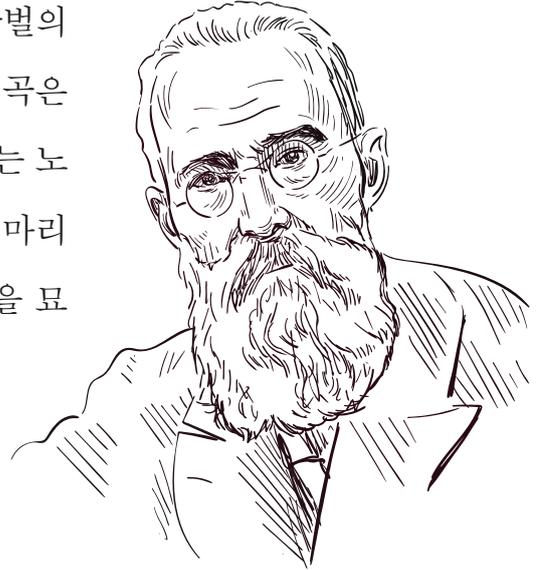
5 마아가 날아가며 내는 윙윙 소리를 상상하며 「왕벌의 비행」을 읽어 봅시다.

왕벌의 비행

러시아의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이라는 곡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곡은 원래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왕벌로 변한 주인공 왕자가 여러 마리의 벌과 함께 악역인 백조를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요.

「왕벌의 비행」은 처음 듣는 사람도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술과 연습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곡이에요. 하지만 눈 깜짝할 새에 끝나버리는 이 「왕벌의 비행」은 벌의 그 작은 날갯짓을 음표로 바꾸어 내고, 음악으로 표현해 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월 새 없이 몰아치는 음 속에서 어떤 때는 경쾌하게, 또 어떤 때는 강렬하게 날아다니는 왕벌을 떠올리게 해 주는 음악 「왕벌의 비행」.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럼 아마 컷가를 윙윙거리는 왕벌 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림스키코르사코프



배움 다지기

- 이야기 속 인물의 기분을 생각하고, 기분을 표현하는 말을 썼나요?

